

경영정보학연구  
제5권 2호  
1995년 12월

## 한국 경영정보학 연구 경향 분석 : 1974-1993

백 상 용<sup>1)</sup> 박 경 수<sup>2)</sup>

### An Analysis of the MIS Research in Korea : 1974-1993

*This study analyzed 89 MIS published in Korea since 1974. The keyword classification scheme proposed by Barki et al. [1993] was employed to classify researched themes of the paper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variables were also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Korean MIS research focused on DSS/ES, IS evaluation, IS development and operations, (2) nonempirical studies took 46% of the 89 papers while survey method was frequently used in empirical studies, (3) in empirical studies, user-related variables were most frequently included as dependent variable while organization-related variables were most frequently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MIS research in Korea were suggested.*

---

1)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2)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 I. 연구의 필요성

1991년 7월에 이르러 경영정보학 관련 논문만을 실는 “경영정보학 연구”가 발간된 것을 보더라도 한국에서 경영정보학이 독립된 학문 영역을 차지한 지는 그리 길지 않다. “경영정보학 연구”가 발간되기 이전에도 경영정보학에 관련된 연구들이 다른 관련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Kuhn[1970]이 제안했듯이 과학연구집단(scientific community)의 존재는 하나의 학문이 독립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전문학술지의 발간은 이를 상징적으로 입증할 뿐아니라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수단으로서 학문의 요건(disciplinary matrix)을 갖추는데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학술지의 발간 외에도 학부[김영문, 1994] 및 대학원과정에서 경영정보학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고, 경영정보학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교재들이 발행됨으로써, 경영정보학의 독자적인 가치(values)나 해법(exemplars)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진전과는 달리 한국에서 경영정보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얼마나 내실있게 발전하고 있는가는 연구된 바가 드물다. 1994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패널토론의 주제로 “MIS 위상정립”이 선정될 만큼 경영정보학 위상정립과 미래의 연구 방향은 한국의 경영정보학 연구집단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영정보학 연구경

향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래의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경영정보학의 연구 경향이나 발전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Culnan[1986: 1987]은 계량서지학(bibliometrics) 방법인 상호인용분석(co-citation analysis)을 통하여 경영정보학 내의 연구분야를 도출하였고, Hamilton & Ives는 인용의 빈도수[1982a]와 연구변수의 종류[1982b]를 이용하여 경영정보학 지식의 전파 속도와 연구분야를 조사하였다. Farhoomand[1987]와 Alavi & Carlson[1992]은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인용분석과 같은계량적으로 정밀한 방법보다는 Farhoomand[1987]가 사용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변수의 종류 및 빈도수를 이용하여 한국 경영정보학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로, 첫째 대상 논문 수가 적고, 둘째, 거의 모든 인용 문헌이 외국 문헌이라 상호인용분석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며, 셋째, 한국 경영정보학 연구 현황의 큰 틀을 파악하는 연구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변수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연구 주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Barki,

Rivard & Talbot[1993]의 주제어 분류체계(keyword classification scheme)를 사용하였다.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지만 이 분류체계는 최근의 연구주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경영정보학 연구의 전 영역을 내포하고 있어 한국의 경영정보학 연구가 어떠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어떠한 영역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비실증분석과 실증분석으로 나누며, 비실증분석은 문헌연구나 경험에 바탕을 둔 개념적인 논문, 수리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논문, 그리고 특정조직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을 분석, 설계한 연구를 포함한다[Hamilton & Ives, 1982b]. 실증분석은 사례연구, 설문연구, 현장실험연구, 그리고 실험실연구로 세분된다. 사례연구는 한 개 내지 소수의 조직을 대상으로 관찰을 통해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설문연구는 면담이나 전화, 우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를 말한다. 설문연구와 현장연구를 구별하기도 하지만[e.g., Cheon, Grover & Sabherwal, 1993],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 방법을 합하여 설문연구로 분류한다. 현장실험연구는 사례연구나 설문연구처럼 주어진 환경을 대상으로 연구 변수를 조사한 것이지만 다른 점은 연구과정에서 특정변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실험실 연구는 실험실이라는 통제 상황에서 연구모델에 따른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를 설정하고 연구 목적에 따라 이를 통제하는 연구를 말한다.

연구변수는 정보변수, 정보시스템변수, 사용

자변수, 조직변수, 환경변수로 분류한다[Ives et al. 1980]. 정보변수는 정보의 특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정보의 정확성, 유용성, 시기적절성 등을 포함하며, 정보시스템변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의 물리적인 성격에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한다. 사용자변수는 사용자의 성격에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의 학습유형, 사용자의 만족도, 사용빈도 등을 포함한다. 조직변수는 조직 전체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조직문화, 조직구조, 조직크기, 업종 등을 포함하며, 개별적인 부서의 업무성격, 부서조직의 집권화정도 등의 부서조직변수도 포함한다. 환경변수는 조직외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인 변수들을 포함한다.

### III. Barki, Rivard & Talbot [1993]의 경영정보학 주제어 분류체계

Barki, Rivard & Talbot의 경영정보학 주제어 분류체계는 1988년에 처음 발표되었다. 이 분류체계는 Ives, Hamilton & Davis [1980]의 경영정보학 연구틀(research framework)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 경영정보학 논문들을 그 틀에 맞추어 분류하여 주제어들을 도출하였다. 즉, 연역적으로 경영정보학의 연구틀을 이용하였고, 귀납적으로 실제 문헌연구를 통해 1100여개에 이르는 주제어를 그 틀이 제공하는 세부 항목에 귀속시켰다. 분류체계는 4단계의 계층적 구조를 가졌으며, 최상층은 9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9개 분야

<표 1> Ives, Hamilton & Davis 연구들과 최상층 주제어 분류 항목 비교

Ives, Hamilton & davis 연구들	최상층 주제어 분류 항목
환경	외부환경, 조직환경, 기술환경
과정	정보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정보시스템 사용
최종 생산품	정보시스템

는 관련학문, 외부환경, 기술적 환경, 조직환경, 정보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개발 및 운영, 정보시스템 사용, 정보시스템, 그리고 정보시스템 교육 및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학문과 정보시스템 교육 및 연구의 두 항목을 제외한 7개의 항목은 Ives, Hamilton & Davis [1980]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표 1> 참조).

1987년 이후의 새로운 연구경향을 포함시키기 위해 1993년에 개정된 분류체계가 발표되었다. 175개이상의 새로운 주제어(예를 들면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객체지향분석, 전자회의 등)가 추가되고 10개의 주제어는 탈락되어 개정된 분류체계는 약 1300개의 주제어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용어 상의 변화로는 최상층의 9개 항목 중 하나인 기술적 환경(technological environment)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주제어 분류체계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Barki et al., 1993]. 첫째, 경영정보학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정의한다. 둘째, 통일된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나 실무자들의 문헌검색이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경영정보학 연구

의 발전을 가능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한국 경영정보학 연구의 세부적 영역을 살펴보고, 이를 분류하여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IV. 한국 경영정보학 관련 논문 분석-경영학연구, 경영과학, 경영정보학연구

연구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 학술지로는 경영학연구, 경영과학, 경영정보학연구를 선정하였다.

경영학연구는 1971년, 경영과학은 1984년, 경영정보학연구는 1991년에 창간되었다. 경영학연구에는 경영학 내의 제반 분야의 논문들이 발표되므로 많은 경영정보학 논문들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1974년도에 한 편이 실린 이후 80년대 이후 매년 2편 내외의 경영정보학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경영과학은 1984년 이후 매년 1편 내지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91년도 이후 발표 논문 편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경영정보학연구의 경우 경영정보학 관련 논문들만 발표되므로 창간호 이후 매년 15편 내외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세 학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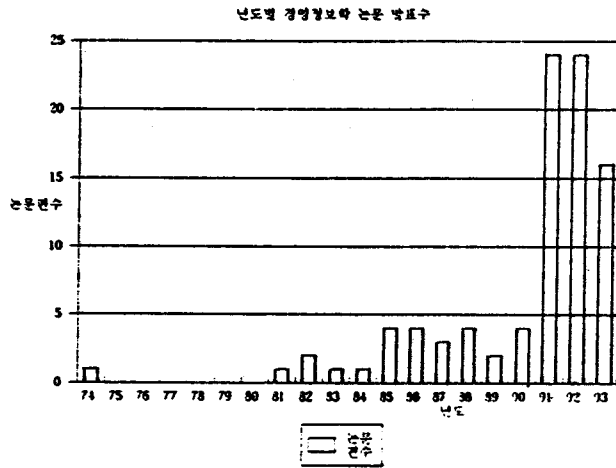
&lt;표 2&gt; 년도별 학술지별 경영정보학 관련 논문 발표분포

년 도	경영학연구	경영정보학연구	경영과학	년도별 합계
1974	1	-	-	1
1975	0	-	-	0
1976	0	-	-	0
1977	0	-	-	0
1978	0	-	-	0
1979	0	-	-	0
1980	0	-	-	0
1981	1	-	-	1
1982	2	-	-	2
1983	1	-	-	1
1984	0	-	1	1
1985	1	-	3	4
1986	3	-	1	4
1987	3	-	0	3
1988	1	-	3	4
1989	2	-	0	2
1990	4	-	0	4
1991	0	19	4	23
1992	1	14	8	23
1993	2	12	2	16
합 계	22	45	22	89

에서 창간호부터 1993년까지 발표된 논문 가운데 경영학연구에서 22편, 경영과학에서 22편 경영정보학연구에서 45편, 합계 89편의 논문들을 경영정보학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표 2>와 <그림 1>을 보면 70년대에는 경영정보학 연구가 한국에서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80년대에 들어 서서히 연구가 시작되

었고 1991년 경영정보학연구가 창간되면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분석대상인 89편의 논문을 선정하는 과정은 우선 두 명의 저자가 각기 독자적으로 선정한다음 의견이 다를 경우 토론을 통해 최종 결정에 도달하였다. 1차 선정에서 81편은 일치하였으며 나머지 8편은 토론을 통해 추가되었다.



<그림 1> 년도별 경영정보학 논문 발표수 : 1974-1993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89편의 논문은 경영정보학 전공 교수 2인과 경영정보학 박사 과정 학생 1인으로 구성된 패널(panel)을 통해 논문선정의 객관적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주제어 분류에 있어서도 3인의 패널리스트(panelist)가 참가하여 저자들의 최초 분류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연구 방법 및 연구 변수는 두 명의 저자가 독자적으로 분류한 후 상이점이 발견되면 토론을 통해 최종 결정하였다.

1. 연구 주제별 분류

<표 3>은 89편의 논문을 Barki et al. [1993] 주제어 분류안의 최상층 2단계를 이용하여 연구 주제별로 분류한 것이다. H 항목(정보시스템)과 E 항목(정보시스템관리)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번째로 F 항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이 12%를 차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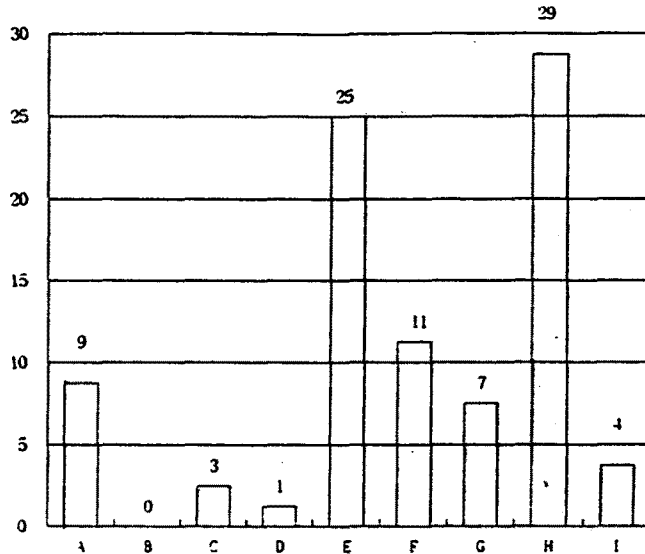
다. H 항목중에서도 HA(정보시스템 유형)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은 HA 항목속의 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s)이 포함되어 있어 활발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반영한 것이다. E 항목중에서는 EI(정보시스템 평가)관련 논문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데 이는 사용자만족도(User Satisfaction)나 사용빈도(IS Usage)에 관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B 항목(외부환경), C 항목(정보기술), D 항목(조직환경)은 가장 빈도수가 낮았다. B 항목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외부환경을 다루는 것인데 해당연구가 없었으며, C 항목이 빈도수가 낮은 것은 경영학 관련 학술지보다는 정보공학 관련 학술지에 주로 연구논문이 발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D 항목의 경우 조직 변수들은 경영정보학 연구에 많이 사용되나 D 항목에 속한 주제에 중점을 두고 경영정보학을 다룬 논문의 빈도수는 낮았다.

&lt;표 3&gt; 연구주제별 분류

분 류	발표논문수	%
A: 관련학문(Reference Disciplines)	9	10
AA: Behavioral Science	1	
AC: Decision Theory	3	
AD: Information Theory	4	
AL: Artificial Intelligence	1	
B: 외부환경(External Environment)	-	0
C: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3	3
CA: Computer Systems	1	
CB: Software	2	
D: 조직환경(Organizational Environment)	1	1
DA: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1	
E: 정보시스템 관리(IS Management)	25	28
EC: Hardware Resource Management	1	
EE: IS Project Management	2	
EF: IS Planning	4	
EG: Organization IS	1	
EI: IS Evaluation	13	
EJ: IS Control	2	
EK: IS Security	1	
EL: IS Management Issues	1	
F: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IS Development and Operations)	11	12
FB: IS Life Cycle Activities	6	
FC: IS Development Methods and Tools	2	
FD: IS Implementation	2	
FE: IS Operations	1	
G: 정보시스템 사용(IS Usage)	7	8
GA: Organizational Use of IS	6	
GB: Users	1	
H: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	29	33
HA: Types of Information Systems	21	
HB: IS Application Areas	7	
HC: Components of IS	1	
I: 정보시스템 교육 및 연구 (IS Education and Research)	4	5
IA: IS Education	1	
IB: IS Research	3	
합 계	89	100

주 제어별 논문편수



&lt;그림 2&gt; 연구주제별 논문편수

## 2. 연구 방법별 분류

<표 4>를 보면, 비실증연구와 실증연구의 빈도수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실증연구 중에서는 개념적인 연구가 50% 정도를 차지하며, 실증연구에서는 설문연구 방법이 가장 빈번하게 선택됨을 알 수 있다 (실증연구 중 약 52%). 주목할 것은 현장실험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협조와 적절한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인 것으로 풀이된다.

## 3. 연구 변수군별 분류-실증연구를 대상으로

총 89편의 논문 중 사례연구를 제외한 실증

연구는 36편이고 이 중 현황파악이나 중요한 문제(key issues)를 다루는 연구 5편은 구체적 변수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변수 분류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31편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분류하였다. 한 편의 논문이 여러 변수군을 다루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변수의 합과 논문 편수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종속변수의 경우 거의 모든 연구가 단일한 변수 내지는 동일한 변수군에 속하는 변수를 다루고 있지만, 김궁현 [1993]의 경우 두개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표 5>를 보면, 종속변수로는 사용자변수가 독립변수로는 조직변수와 사용자변수가 빈번하게 선택됨을 알 수 있다. 외부환경변수는 실증연구의 연구모델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lt;표 4&gt; 연구 방법별 분류

분 류	발표논문수	%
비실증연구	41	46
문헌연구 및 개념적인 연구	21	
정보시스템 개발	9	
수리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11	
실증연구	48	54
사례연구	12	
설문연구	28	
현장실험연구	0	
실험실연구	8	
합 계	89	100

&lt;표 5&gt;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분포

변수군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사용자변수	24	13
정보변수	1	7
정보시스템변수	3	8
조직변수	4	19
외부환경변수	0	0

관찰할 수 있다.

## V. 미국 경영정보학 연구 경향과의 비교

앞 장의 89편의 논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경영정보학 연구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구 방법으로는 실증연구가 비실증연구보다 약간 우세하고, 실증연구는 설문연구를 이용한 사용자변수와 조직변수의 관

계를 다루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미국의 경영정보학 연구경향을 분석한 Farhoomand[1987]와 Alavi & Carlson [1992]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Farhoomand[1987]은 1977년부터 1985년까지의 9년간의 미국의 6개 학술지에 발표된 536개의 경영정보학 논문을 분석하였는데 9년을 3개의 시기로 나누어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영정보학은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실증연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등이 가장 빈번하게 연구 주제로 채택되고 있다고 한다.

더 포괄적인 연구인 Alavi & Carlson [1992]는 1968년부터 1988년까지 21년간 미국의 9개 학술지에 발표된 908편의 논문을 3년 단위로 7개의 시기로 나누어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본 연구와 같이 Barki, Rivard & Talbot의 주제어 분류안을 이용하여 논문을 분류하였는데, E 항목, H 항목, F 항목이 가장 빈도수가 높고 B 항목, C 항목, D 항목은 가장 연구가 미약한 부분으로 파악되었다(<표 6>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거의 전 시기에 걸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따른 추세의 변화는 연구 방법상에서는 관찰할 수 있었는데 1986-1988 시기에 이르러 비실증연구 보다는 실증연구가 더 많이 발표되었다.

이상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경영정

보학 연구경향의 분석결과는 기간을 세분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80년대 중, 후반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참조). 따라서 한국 경영정보학 논문의 주제, 연구방법, 연구변수의 선정에 있어 독자적인 연구 경향은 파악하기 힘들었으며 거의 미국의 경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럽과 미국의 경영정보학 연구경향의 비교 결과를 보면, 미국은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의 분석 전통을 고수하며, 유럽은 해석주의(interpretivism)을 바탕으로 비실증연구가 우세하다. 따라서 유럽의 경영정보학 연구는 나름대로의 독자적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varisto & Karahanna-Evaristo, 1993). 학문의 보편성의 입장에서 한국의 연구 경향은 이해될 수 있으나 학문의 특수성의 입장에서는 응용학문으로서 한국적 특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표 6 > 본 연구와 Alavi & Carlson[1992]의 주제어 분류 결과 비교

순 위	본 연구: 1974-1993	Alavi & Carlson 연구: 1968-1988
1	H	E
2	E	H
3	F	F
4	A	A
5	G	G
6	I	I
7	C	D
8	D	C
9	B	B

## VI. 제 안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미국 연구경향과의 비교를 통해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영정보학 연구”만이라도 논문 발표 시 저자로부터 주제어를 선정하도록 하여 논문에 기재되기를 제안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논문 검색을 수월하게 해주며 주기적으로 연구 경향을 파악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분류체계는 기존의 개발된 것을 사용하거나 독자적으로 개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실증연구에 있어 외국, 특히 미국 논문의 연구모형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이론이나 모델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의가 있으나 한국의 경영정보 실무자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변수를 포함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유형, 전통적 가치관,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인사관행의 정실주의 같은 한국 특유의 변수들이 연구모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관련학인 사회학, 거시조직학, 심리학등이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때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셋째, 실증연구 중 설문연구에 있어 설문작성과정 및 자료 분석과정에서 설문 문항들의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외국 연구의 설문지를 번역해서 사용할 경우에 번역

작업(예를 들면, 역번역: back translation)이 원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언어학적인 일치성보다는 설문응답자에게 동일한 자극(stimuli)을 줄 수 있을 때 그 설문의 유효성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Hulin & Drasgow, 1982: Hulin & Mayer, 1986: Hulin, 1987]. 설문연구에 있어 표준 설문문항의 중요성은 미국 경영정보학 연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다도 자명하며, 이를 통해 연구 결과가 누적될 수 있다[Ives & Olson, 1984: Jarvenpaa et al., 1985].

넷째, 한국 경영정보학의 위상정립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비단 한국의 경영정보학만이 겪는 독특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동일한 문제를 미국과 한국의 경영정보학 연구자들이 겪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다르다. 미국의 경우 경영정보학의 독자적 학문영역의 성립 및 확보[Banville & Landry, 1989: Cushing, 1990]나 접근방법[Kling, 1980: Markus & Robey, 1988: Weill & Olson, 1989]에 중점이 두어진다면, 한국의 경우 경영정보학 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갈등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미국에서 연구된 모형이나 이론이 한국의 경영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경영정보학 이론의 보편성은 확보된다고 할 수 있으나, 1994년 경영정보학 추계학술대회의 패널토론 과정을 보면 경영정보시스템 실무자들의 견해는 이론의 보편성과는 거리가 있다. 경영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의는 외국 경

영지식이 한국에 수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각 경영학 연구 분야별로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이다[이학중, 1977: 서남원, 1980]. 신유근[1992]이 제시하듯이 한국의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이를 통해 보편적 경영이론과 접목시킬 수 있는 일반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궁현 “내부통제시스템이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 연구, 22(2), 1993년 6월, pp. 43-74.

김영문 “국내 4년제 대학의 MIS학과 교과과정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4(1), 1994년 6월, pp. 47-73.

서남원 “한국경영학의 대두를 위한 기본접근에 관한 고찰,” 경영학 연구, 1980년 2월, pp. 33-51.

신유근 한국의 경영-그 현상과 전망, 박영사, 1992.

이학중 “경영학의 한국화,” 경영학 연구, 1977년 2월, pp. 135-136.

Alavi, M. & Carlson, P. “A Review of MIS Research and Disciplinary Development,” *Journal of MIS*, 8(4), 1992, pp. 45-62.

Banville, C. & Landry, M. “Can the Field of MIS be Disciplined?” *Communications of ACM*, 32(1), Jan. 1989, pp. 48-60.

Barki, H., Rivard, S. & Talbot, J. “An Information Systems Keyword Classification Scheme,” *MIS Quarterly*, June 1988, pp. 299-322.

Barki, H., Rivard, S. & Talbot, J. “A Keyword Classification Scheme for IS Research Literature: An Update,” *MIS Quarterly*, June 1993, pp. 209-220.

Chen, M., Grover, V. & Sabberwal, R. “The Evolution of Empirical in IS: A Study in IS maturity,” *Information & Management*, 24, 1993, pp. 107-119.

Culnan, M.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972-1982: A co-citation analysis,” *Management Science*, 32, 1986, pp. 156-172.

Culnan, M. “Mapp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MIS, 1980-1985: A co-citation analysis,” *MIS Quarterly*, 11, 1987, pp. 341-353.

Culnan, M., & Swanson, E. “Research in Man-

- agement Information Systems, 1980-1984: Points of Work and Reference," *MIS Quarterly*, 10, 1986, pp. 289-301.
- Cushing, B. "Frameworks, Paradigms, and Scientific Research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Spr. 1990, pp. 38-59.
- Evaristo, J. & Karahanna-Evaristo, E.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Differences between North American and European MIS Research," *Proceedings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Dec. 1993, p. 387.
- Farhoomand, A. "Scientific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ata Base*, Summer, 1987, pp. 48-56.
- Hamilton, S. & Ives, B. "Knowledge Utilization among MIS Researchers," *MIS Quarterly*, 6, 1982a, pp. 61-77.
- Hamilton, S. & Ives, B. "MIS Research Strategies," *Information & Management*, 5, 1982b, pp. 339-347.
- Hulin, C. & Drasgow, F. "Applications of Item Response Theory to Analysis of Attitude Scale Trans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 (6), 1982, pp. 818-825.
- Hulin, C. & Mayer, L. "Psychometric Equivalence of a Translation of the Job Descriptive Index into Hebr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1), 1986, pp. 83-94.
- Hulin, C. "A Psychometric Theory of Evaluations of Item and Scale Translations: Fidelity across Languag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2), June 1987, pp. 115-142.
- Ives, B., Hamilton, S. & Davis, G. "A Framework for Research in Computer-Base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Science*, 26(9), Sept. 1980, pp. 910-934.
- Ives, B. & Olson, M. "User Involvement and MIS Success: A Review of Research," *Management Science*, 30(5), May 1984, pp. 586-603.
- Jarvenpaa, S., Dickson, G. & DeSanctis, G. "Methodological Issues in recent empirical research," *Computing Survey*, 12(1), 1980, pp. 61-110.
- Kuhn, T. *The Structures of Scientific Revolu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linois, 1970.
- Markus, M. & Robey, D. "Information Technology and Organizational Change: Causal Structure in Theory and Research," *Management Science*, 34 (5), May 1988, pp. 583-598.
- Weill, P. & Olson, M. "An Assessment of the

Contingency Theor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Journal of MIS*, 6(1), Summer 1989, pp. 58-85.

### ◇ 저자소개 ◇



공동저자 백상용은 한국 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Mississippi State Univ. 경영학 석사, Memphis State Univ.에서 경영정보학으로 경영학박사를 취득하고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시스템부서의 역할과 조직, 정보시스템 계획, 정보기술의 조직에 대한 영향 등이다.



공동저자 박경수는 전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과학으로 경영학박사를 취득하고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의사결정모형, 정보시스템 계획,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등이다.